

【특 집】

李旭 시의 변화 양상 연구

김 경 훈*

차례

- I. 문제 제기
- II. 해방 전 작품의 기본 양상
- III. 해방 후 작품의 변화 양상
- IV. 결론

국문초록

리욱(李旭, 1907~1984)의 해방전후 시창작의 변화상을 비교한 결과, 해방 전의 작품에서는 초기의 단순하고 직설적인 표현 속에서도 스케일이 큰 대륙적인 기질을 엿보이는 시적 상상력이 이후의 시인의 창작에서 보다 폭이 넓은 시적 공간과 주제의 깊이를 가능케 하였다고 보았고 이는 <躑躅花>와 같은 작품에 이르러 보다 구체적인 시어로 풍성해지면서 시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주제를 한결 형상적인 새로운 언어들로 전해주고 있는 데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시적인 성취도는 그후 일제의 파시즘이 강화되면서 많은 문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친일적인 작품들이 나오기도 하여 아쉬운 점을 보이기도 하였다. 다음 해방 후의 창작을 살펴볼 때, 격변의 시대적인 상황에서 우선 주제의식에서 <民族이 가진榮譽로운 이름>과 같은 작품들에서 민족이나 국가에 대한 관념에서 혼란된 인식을 보이고 있었다. 그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고 “대약진운동” 등 많은 운동 속에서 그러한 인식이 정돈되고 수정이 되었다. 또 넓은 표현방식도 대폭 수정되었고 그 이후 격변하는 혁명의 시대를 지나 가정적이고 미세한 인간의 정の世界로 회귀했음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 연변대학교 교수

조선족의 대표시인 중 한 사람으로서의 리옥의 해방 전과 해방 후의 창작은 그대로 조선족 시문학의 역사적인 흐름과 점철되어 있다. 따라서 시인의 생애와 사회적인 배경은 물론, 작품에 내재하는 심층적인 층위의 여러 가지 양상들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도 체계적이며 깊이 있는 논의는 조선족 시문학의 역사적인 변모뿐만 아니라 이후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연구에서도 자못 의미 있는 작업임에 분명하다.

주제어 : 리옥, 시, 해방 전후, 변화양상

I. 문제 제기

리옥(李旭, 1907~1984)¹⁾은 해방 전 후에 걸쳐 중국 조선족 시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대표 시인으로 시대적인 변화에 따른 그의 작품의 창작양상을 연구하는 것은 조선족문학을 재고하는 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 1) 시인 리옥은 본명이 李章源, 아명이 리수룡이며 해방 전에는 李鶴城, 月村, 紅葉, 丹林, 汕琴, 月波 등 필명으로 활약했고 광복 후에 리옥으로 개명, 작품 발표에도 이 이름을 사용하였다. 1907년 7월 25일 러시아 연해주 신한촌(일명 고려촌)에서 가난한 한의 리한울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증조부 때에 조선에서 중국 화룡현 강장동에 이주하여 살았으나 살기 좋다는 소문에 로명 신한촌으로 이사, 역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해 시인이 세 살 나던 해인 1910년에 다시 강장동으로 돌아왔다. 시인은 어릴 때부터 서당훈장을 지낸 조부와 한학을 익힌 아버지한테서 한문을 배우고 서예를 익혔다. 1924년 4월에 용정 동흥중학교 2학년에 편입하였으나 생활난으로 이듬해 7월에 중퇴하였고 그후 회양, 창동 등 소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시창작을 하였고 1924년에 처녀작 “생명의 예물”을 발표, 여러 편의 서정시와 함께 단편소설 “破鏡”을 발표하여 문단의 주목을 끌었다. 1930년 초에 사회주의사조에 고무되어 소련에 가서 진학하려는 꿈도 가졌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농사를 지었다. 1937년 7월 “조선일보”와 “조광”의 간도특파원을 맡고 기자 겸 신문잡지의 발행에 종사하였고 일제에 의해 이러한 간행물이 폐간되자 연결서점의 점원으로 있었고 1944년 5월에 “매일신보”의 연결주재 임시기자로 있기도 하였다. 1947년에 첫 개인시집 “복두성”을 출간하였다. 1948년 군정대학을 나왔고 “대중”지의 주필, 연결대중도서관 관장을 지냈으며 1949년에 두 번째 시집 “북쪽의 서정”을 출간하였다. 1949년 4월 연변사범학교에 취입되어 교편을 향사람들”(1957), 서정서사시 “연변의 노래”(한문, 1957), 시집 “장백산하”(한문, 1959)를 출판하였고 1982년에 와서 자선시집 “리옥 시선집”과 장편서사시 “풍운기”(제1부)를 출판하였다. 한편 “풍운기” 제2부를 탈고하였고 자선시집 “땅의 노래”와 한시집 “협중시사”(廣中詩詞)를 탈고했으나 지병으로 1984년 2월 6일 77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다.

특히 그의 창작에서의 변화상에서 그간 학계에서 지나쳐왔던 부분, 이를테면 시인의 해방 전후의 변화 양상이나 국책문학적인 부분을 새롭게 밝히고 그의 시가의 주제나 어조 등 특징을 보다 분명히 하는 것은 조선족 시문학뿐만 아니라 민족문학의 객관적인 조명을 위해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지금까지의 연구 상황을 검토해보면, 가장 일찍 리옥의 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한 논문으로는 전국권의 「리옥론」(임범송, 권철 주필, 『조선족문학연구』, 1989,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47~266쪽)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은 리옥에 관한 시인론으로는 가장 처음으로 되는 논문으로도 파악되는 데 기본적인 구성이나 내용으로 보면 시인의 생애가 자세히 소개된 데 비해 작품에 대한 분석은 소략하게 되어 있어서 시인의 창작적인 변화상이나 특점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느낌이다. 특히 그러한 분석이나 논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적인 부분이 논문의 서언에서 “조선족의 사회주의사실주의문학의 정초자의 한사람이다”라고 했다가 한 페이지를 넘기지 못하고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랑만주의시인이었다.”(247쪽)라고 하는 자가당착적인 주장이나 “그의 해방전 작품은 물론, 생애의 마지막까지도 많은 시는 상징법과 인상법을 사용하였는바 형상성이 아주 강하여 보다 예술적인 원숙성을 보이고있다.”라는 평가에서 엿볼 수 있듯이 적지 않게 발견되는 시인의 작품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에 혼란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다.

한편, 리옥의 시에 대한 논문은 권철의 「건국전 리옥의 시세계」(연변대학 조선문학연구소 편, 『중국조선민족문학대계6』, 2005.6, 김조규·윤동주·리옥 시집,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로 리옥의 해방 전 시 작품에 대한 해제로 나와있다(341~351쪽). 이 논문은 리옥의 생애에 대한 소개를 중심으로 대표적인 작품들을 간략하게 분석하고 있는데 기본 주제에 대한 소개가 있는 외에 시인만의 특유의 시각이라든가 관심 영역, 표현의 방식은 분석되지 않고 있다.

이밖에 조성일 외, 『중국조선족문학사』(1990.7, 연변인민출판사)와 김호웅 외, 『중국조선족문학통사』(상권, 2011.12, 연변인민출판사, 하권, 2012.6, 연변인민출

판사) 등에서는 통시적인 시각과 해당 시기의 특징된 사회적인 배경에 의해 리옥의 시창작을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조성일 외의 『중국조선족문학사』에서는 “제3편 당대문학”에서 제2장을 전문 할애하여 리옥의 해방 후 시를 다루고 있는데 생애의 부분에서 “야학을 꾸려 농민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계몽사상을 전수함과 아울러 그들을 단합해가지고 지방토호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기도 하였다.”(367쪽)라는 내용이 시인의 생애에 대한 이전의 소개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내용으로 보충되고 있다. 시인의 해방 후의 작품에 대한 분석은 “제2절 서정시와 한문시”, “제3절 서정서사시 《고향사람들》”로 나누어져 있으며 “제4절 리옥 시문학의 예술적특징”에서는 시인의 시창작에 대해 “력사제제에 대한 흥취가 각별하고 거인적형상창조에 모를 박았으며 격조가 높고 뜻이 깊으며 서정이 짙고 낭만적색채 및 민족적특색이 강하다.”(384쪽)라고 그 창작적 특징을 개괄하고 있다.

한편, 김호웅 외의 『중국조선족문학통사』에서는 그 상권의 “제3장 이민 후기(1931~1945년의 시문학”, “제6절 생명과 향토에 대한 사랑-리학성과 그의 시”에서, 정착자로서의 남다른 향토애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작품의 정서적 원천을 분석하고 있는데, 하지만 시인 스스로가 고백했던 젊은 시절의 프랑스 상징주의와 곽말약의 낭만주의의 영향을 인용함으로써 시인의 시적인 표현특점에 대한 분석을 대신한 점이라든가, <北斗星>과 같은 작품을 두고 “일제의 통치말기에 이처럼 거시적인 역사적안목과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해방의 새 아침을 예언하고 노래한 시인이 또 누가 있었던가?”(180쪽)라는 주장은 해방 전의 시인의 복잡한 시창작의 과정에 대하여 간단하고 직선적이고 다소 감상적인 서술에 그치고 말았다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 또 같은 책의 제4장 “리옥과 그의 시창작”에서는 한 개 장을 전문 할애하여 시인의 해방 후 창작을 조명하고 있지만 “제1절 생애와 창작의 길”, “제2절 서정시와 한문시”, “제3절 서정서사시 ‘고향사람들’”, “제4절 리옥 시문학의 예술적특징”은 그 기술 체계는 물론, 내용에 있어서도 조성일 외의 『중국조선족문학사』를 대부분 답습한 느낌이다. 이는 시인의 해방

후 창작에서의 특징이라는 중요한 내용을 다룰 때 “제4절 리옥 시문학의 예술적특징”에서 “력사제재에 대한 흥취가 각별하고 거인적형상창조에 모를 박았으며 격조가 높고 뜻이 깊으며 서정이 짙고 량만적색채 및 민족적특색이 강하다.”라고 앞의 책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한 것에서 잘 나타난다. 김호웅 외의 『중국조선족문학통사』의 집필진에서 제2저자가 조성일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21년이란 시간적 흐름을 돌이켜보면 조금이라도 새로운 관점이 나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자아내는 부분이다.

이와 같은 기존의 연구 상황을 돌이켜보면, 리옥의 시 창작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그의 생애와 사회적인 배경은 물론, 작품에 내재하는 심층적인 주제나 표현의 여러 가지 양상들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도 체계적인 논의가 깊이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리옥의 그러한 다양한 시창작에서 해방 후의 창작이 어떠한 변모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해방 전의 대표적인 작품과의 비교 속에서 그러한 변모가 어떠한 특징적인 모습으로 전개되어 갔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기본 자료로 활용할 텍스트는 해당 시기에 발표되었거나 출판된 조선문 작품을 대상으로 하고 발표나 출판 시기의 문법체계를 그대로 존중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아울러 그러한 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위주로 사회역사적인 배경과 기타 관련 문화와의 관계도 아우르는 보다 열린 연구시각을 취하고자 한다.

Ⅱ. 해방 전 작품의 기본 양상

리옥의 해방 전 작품은 매우 다양한 소재와 개성적인 목소리들로 특징된다 하겠다. 이러한 것들은 작가는 소재의 선택에서, 크게는 시대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르기까지, 또 구체적인 시어에서 나름대로의 상징체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 있는 것들이다.

生命은
宇宙이다
그러나 宇宙는 生命보다 작다.

山
바다
나도 生命이 한 개점이어니!
(중략)

내 이제 뛰는 生命의 脈搏을 타기에
生命은
빛난 禮物을 고여들고
니 밤의 광야에서
나의 앞에
햇불을 들었구나.²⁾

개인의 정신적인 세계를 자연에서의 우주와 비교하고 이를 우주보다 더 크고 거창한 것으로 주장한 부분이 주목된다. 초기의 시로서 직설적인 표현이 없지 않아 보이지만 그러한 기발한 시상에서 스케일이 큰 대륙적인 기질까지 엿보이는 듯한 느낌은 이후의 시인의 창작에서 보다 폭이 넓은 시적 공간과 주제의 깊이를 가능케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躑躅花³⁾

봄은 파일 고개도 넘어
탐탁한 躑躅꽃이
하염없이 지길래

2) <생명의 레물>, 1924년 『간도일보』에 게재되었다고 전해짐. 『중국조선민족문학대계 6』, 김조규·윤동주·리욱 시집, 연변대학 조선문학연구소 편, 2005.6,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352쪽.

3) 1942년 10월에 간행된 『在滿朝鮮詩人集』(藝文堂)에 수록되었다고 한다. 『중국조선민족문학대계 6』, 358~359쪽.

시드는 꽃송이에
내 진정한 이야기를 부치오

꽃보라속에
나비가 놀라오
나도 늙소
그래도 내마음 薔薇에는
푸른 꿈이 깃들어 슬프지않소

오! 전설의 나라 躑躅아
이제 盛裝을 버린 너는
여름철에
百畝꽃을 부러워할테냐?
가을철에
山菊花도 부러워할테냐?
-아니오
-아니오
그렇길래
나는 너의 짧은 青春을 사랑했다.
나는 너의 타는 情熱을 사랑했다.

보다시피 <躑躅花>에 이르러 “생명”이나 “우주”와 같은 시어들이 시적인 형상이나 변화가 이닌 개념 그대로 쓰이던 전 시기에 비해 “躑躅花”나 “나비”나 “薔薇”, “百畝”, “山菊花”와 같은 구체적인 시어로 풍성해지면서 시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青春”이나 “情熱”이란 주제어의 자칫 관습적인 데 머물 수 있는 용어에 형상적인 새로움을 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적인 성취도는 1941년 12월 7일에 발발한 태평양전쟁으로 일제의 파시즘의 통치가 가장 암흑기를 장식해나가던 시기에 이르면 많은 문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친일적인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민족문단의 어둠이 가심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리욱의 경우도 피해갈 수 없는 운명적인 시기로 파악된다.

百年夢⁴⁾

太陽이 첫우습을 펴는동산에
 十億同胞가 꽃송이에서呼吸한다
 - 한썩리다
 - 한씨다
 祖國의 傳說是 이씨푸른
 江床에 흐르고
 兄弟의 碧血은 수만혼靈座에 물드러다
 직히자 疆土를
 사랑하자 同胞를
 이젠 자장가는 구성지며
 聖스러운 百年夢은 이룩했거니 半島山河도 軍裝한다
 東方民族은 鐵環된다

“百年夢”에 “半島山河도 軍裝”하고 “東方民族”이 철통같이 뭉친다는 뜻의 그러한 내용은 일제가 표방했던 “대동아공영권”을 그대로 떠올린다. 중일전쟁 시기, 일제는 전쟁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1940년 7월 <기본국책강요>를 발표, “동아신질서는 日滿支를 근간으로 하고 그것에 남양을 추가해 황국의 자급자족경제를 확립한다”는 대동아공영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메이지 이래 일제의 대외침략이론으로 떠오른 아시아 주의, 아시아 연대론에 뿌리를 둔 것으로 일제는 구미제국주의 침략에 상대해 동아시아 각 민족의 생존권과 번영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들의 침략적인 논리를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바로 “한썩리”, 한 “兄弟의 碧血은 수만혼靈座에 물드러다”고 “聖스러운 百年夢은 이룩했거니 半島山河도 軍裝”했다고 노래하는 “百年夢”은 그러한 “대동아공영권”의 꿈과 크게 다를바 없다.

역시 “李鶴城”이란 이름으로 1942년 8월 17일 『滿鮮日報』에 발표했던 <捷報>⁵⁾를 보기로 하자.

4) 『滿鮮日報』 1942년 5월 25일에 “李鶴城”이란 필명으로 발표됨. 『중국조선민족문학대계 6』, 358쪽.

푸른 意慾이
 薔薇빛地圖에 번지어간다
 적도아래에는
 遠征의 隊伍와 隊伍의行列이
 스치어
 決戰의 아우성
 太平洋의 섬과섬은
 軍神의깃에 그늘지고
 푸른湖水우에
 두세白鷗가 물송을쳐
 오돌진꿈이 물몽오리되어풍겨온다
 오직 하나인 祈願에머리를 숙으리고
 새론 歷史의 「이데! -」⁶⁾를 부르자
 조심스러히 엮드린 안테나도
 世紀의 층층대를 구버본다
 이제 바다의 頌歌는 돌려오나니
 香氣로운 南風을깃쫓마시며
 눈물이 철철흐르는 祝盃를 들자(쑈)

“日滿支를 근간으로 하고 그것에 남양을 추가해 황국의 자급자족경제를 확립한다”는 대동아공영권의 꿈은 일본의 젊은이들은 물론 식민지나 식민지의 과정에 놓인 지역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일제의 침략적인 전쟁에 공조하고 떨쳐나설 것을 강요하였고 일정한 정도에서 이들을 쇠뇌시키기도 하였다. 따라서 일제에 의해 왜곡되고 그릇된 현실적인 인식은 “푸른 意慾”들을 좀 먹고, “遠征의 隊伍와 隊伍의行列” 속에서 목이 터져라고 웨쳐대는 “決戰의 아우성”은 “軍神의깃에 그늘” 가운데 “새론 歷史의 「이데! -」를 부르”고 “눈물이 철철흐르는 祝盃”를 드는 황당한 행동에 자화자찬하게 되는 것이다.

5) 『중국조선민족문학대계 6』, 366쪽.

6) ideal를 말함. 필자 주.

이러한 혼란된 역사와 현실 의식은 <鬪魂>(『滿鮮日報』 1942년 6월 1일, “李鶴城”)에 나오는 “烽火가 터졌다/軍神이 내렸다”라는 표현이서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였다.

물론 “시국”에 대한 그러한 시적인 화답은 시인에게 마냥 마음 편한 행동일 수가 없었을 것이다. 나름대로의 고민과 회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시인에게 새로운 출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탐색하도록 압박하였음이 분명하다. 이는 다음 작품에서 부분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

帽兒山⁷⁾

이땅 짧은 생명을 기르는
海蘭江과 부얼하통河는
너 모얼山 創世記의 佳緣이고

이곳 각색 살림을 담은
용드레촌과 야-니지강(崗)은
너 모얼산 지켜온 적은 花園이다.

億萬呼吸이 깃드릴 大地이 情熱을 안고도
푸른 하늘을 이고 默默地 앉았으니
너 모얼산은 偉大한 占人같기도 하다.

네 머리에 해와달이 흘러 흘러
쌓은 情怒가 터지는 날은
自由의 깃발이 날리리니.
우리가 豆滿江 건너서
처음본 너 모얼山은 푸르려야 할텐데
百年을 기다리노?
千年을 기다리노?

7) 1944년 3월에 지은 것으로 시집『北斗星』에 수록되었다. 『중국조선민족문학대계 6』, 383~384쪽.

(중략)

오!
그러나 모열山아
너는 여태 굴한일없이
우리의 본보기 되었거니.

나는 山에 올라
짐짓 「모세」가 되고
「마호멧트」가 되어
그의 啓示도 깨었고

이제 山에 내려
못사람속에서 소리쳐 불러
너 山울림을 듣는다
너 山울림을-

이 작품은 일제에 어느 정도 부응하기도 했지만 시인의 정신적인 내면의 깊은 층위에 간직하고 있던 민족적인 향수와 우려와 미래적인 염원이 아직 남아있음을 드러내는 작품이라 하겠다. 해당 시기에 매우 모순적이었던 시인의 복잡한 내면세계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러한 모순된 시인의 심경은 1940년에 지었고 1947년 3월에 시집 『颱風』에 유일한 한 수로 수록된 <血痕에 핀 꽃>이 같은 해에 출판한 시인의 시집 『北斗星』에 <새花園>으로 게재되었지만, 1980년에 출판된 『리옥시선집』에서 다시 <새花園>으로 제목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제3연인 “壁우에 苦憫을 손톱으로 오려/歲月을 쫓던/落齒한 늙은 벼이 있었다.”가 삭제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엿볼 수 있어서 시인의 고민이 시대를 뛰어넘으면서도 쉽사리 가셔지지 않을 정도로 깊고 큰 것이었음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Ⅲ. 해방 후 작품의 변화 양상

리옥 시인이 해방 전에 겪었던 여러 가지 시적은 고민은 그 시대의 사회적 암울함과 함께 그 시기를 살았던 많은 문인들의 공통된 정신적 고민이나 방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리옥 시인의 그 같은 고민이나 방향은 그 자체에 머무는 것은 아니었다. 광복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는 시인에게 참다운 길, 보다 성숙된 길을 걸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준 것이다. 그는 <사랑하는 거리>에서 “오 오 내 사랑하는 이거리 이거리우에는 / 흰구름이 오가고 노-란달이 흘렀으나 / 이제 풀려서 뛰쳐 일어난 이거리 이거리는 / 머리에 새 투구를 쓰고 / 손에는 새 방패를 들었다”(제5연에서, 『중국조선민족문학대계 6』, 393쪽)라고 함으로써 새로운 광복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맞닥뜨린 시인의 보다 분명한 사회적, 시인으로서의 자세를 보여준다. 이러한 판단은 이 작품이 1945년 8월에 지은 것으로 표기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충분히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상황 변화에 따른 이러한 뒤바뀌는 자세는 격변의 시대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과 그에 따른 시 창작에서의 새로운 정서와 주제로 확고하게 자리잡아가게 된다.

쏘련 홍군이
 땅크 넘던 비석령!
 진실로
 승패많은 곳이고
 인연생긴 땅이로다!
 피 피 얼룩져
 이마을 이야기는 다단하거니
 오늘은 바로
 팔로군,
 의용군,
 으리으리한 용사

보인다 보인다.

-〈羅子溝〉5, 6 연⁸⁾

시인은 실제로 1946년부터 1948년까지 동북군정대학에서 공부하면서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았고 왕청현 라자구에서 토비숙청에 직접 참가하면서 간고하고 처절한 혁명의 시련을 직접 겪기도 하였다. 바로 예문으로 든 작품에서는 그러한 전투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피로 얼룩진 사연들을 소재로 혁명적인 현실에 대한 드팀없는 확신에 기초한 시적인 분위기로 잘 승화해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그런데 시인의 그러한 확고한 현실인식은 모든 내용들에서 일사분란하게 분명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시적인 주제와 표현의 방식에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 사항이다.

1. 주제에서의 변화 양상

우선 광복을 전후한 시대에 살았던 대부분의 조선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시인 역시 민족이나 국가에 대한 관념에서 혼란된 인식을 보이고 있었다.

民族이 가진 榮響로운 이름
 東方아세아에 처음 일어선
 人民의 나라 조선을
 同胞여
 兄弟여
 가슴 벽차게 노래해야겠다
 (중략)

이 나라 강산아
 내 묻노니

8) 『중국조선민족문학대계 6』, 394~395쪽. 작품의 말미에 “1947년 왕청 라자구”라고 표기되어 있음.

만고의 애국자 그 누구런고
억년을 잠자던 만경대 대답하라
천수를 흐르는 大同江이 대답하라

「金日成 將軍」
이 나라 민족이 가진 榮譽로운 이름을
동포여
兄弟여
소리 높여서 불러야겠다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1948년 9월 9일에 성립되었음을 감안하면, 이 작품은 1948년 9월이나 10월 경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민족에 관한 근대적인 관념이 아직 정착되지 않았던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전의 시인의 민족관념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민족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국가 개념에 앞서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도 하겠다. 한편 이러한 민족관념에 기초한 시인의 조국관은 다른 한 작품인 <조선이 일어난 아침>에서 노래하고 있는 데서 그 정체성이 아직 이주 초기의 것과 별반 다른없는 것임이 그대로 드러난다.

오 나는 北方한地域에서
조국의 太陽 金日成首相을 삼가 받들었노니
널리 자랑하리라 / 조국 조선의 헌법을 -
길이 빛내리라
조국 조선의 國旗를 -

- 마감 연, 『중국조선민족문학대계 6』, 419쪽

하지만 그러한 관념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대약진 운동”과 “인민공사운동”, “반우파투쟁”과 “문화대혁명”이라는 수차의 정치 운동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정돈되고 수정이 된다.

9) 『중국조선민족문학대계 6』, 416~417쪽.

여기는 동방
태양이 맨 처음 솟아
이른아침 해빛아래
온갖 꽃 피는-
빨간꽃은 충성이요
파란꽃은 행복이요
.....

우리는 동방의 풍격!
그 기상 천추에 빛나리니
충렬의 불꽃으로
지혜의 빛발로
일편단심 고여라
칠색무지개 걸어라.
(중략)

나의 청춘 불러 일으켜준 당이여,
나의 간담 붉게 물들여준 당이여,
푸른 하늘이 한 장 종이라도
내 시로는 그 크낙한 은덕 다 못쓰리
태산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어.

푸른 하늘 붉은 노을아래
한떨기 모란꽃마냥 활짝 피어난
내 조국 아름다운 금수강산!
현대화의 큰 우레 울어울어
전야에는 황금과도
유전에는 석유폭포라
붉은기 휘날리고
천리마 내달리고.¹⁰⁾

10) <조국찬가>, 시집 『변강의 무지개』, 1979.3, 연변인민출판사, 63~64쪽.

금풍이 부는 시월 청명한 초하루
세계의 동방에 금빛태양이 솟았으니
그 이름 높이 불러 중화인민공화국!

뜨거운 감격으로 안아올린 력사의 메부리여
인류가 신기하게 쳐다본 세기의 령마루여

태어나서 자란지 서른둘
걸어온 투쟁의 길, 승리의 길
그 길은 자못 심상치 않았거니
아! 하늘길 몇천리런가
바다길 몇만리런가.

그렇게 금수전정을 펼쳤고
영웅사적을 엮었거니

이제 쓰린 추억을 가시고
휘황한 전망으로 나래치자.
(중략)

오! 나의 조국
나의 생존의 기둥이여
오! 나의 생활
나의 변영의 샹터여!

이 나라엔
해와 달이 영원히 꺼질줄 몰라라.
이 나라엔
새소리, 꽃향기 영원히 멎을줄 몰라라.
하여 살로써 아끼고 피로써 지키노라!

조국은 나래친다
하늘바깥 저 푸른 하늘로 나래친다

별이 흐르고 달이 흐르는 푸른 하늘로 내려친다.

나는 늙은 시인이다만
목청을 돋우노라

오오! 시월을
온갖 꽃으로 고여라
온갖 노래로 고여라
온갖 화폭으로 고여라!¹¹⁾

당과 수령, 그리고 국가에 대한 절대적인 옹호와 찬양은 해당 시기의 대부분의 문인들이 그러했듯이 “늙은 시인이다만” 리옥에게도 적용되는 경우라 하겠다. 하지만 그러한 사회와 문학적인 환경의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시인의 개인적인 시각이나 개성적인 목소리가 사라져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기의 예문들은 문학의 내적인 흐름에서가 아니라 사회정치적인 요소의 강력한 개입으로 인한 획일적인 문학에로의 변모를 보여준다.

2. 표현 방식에서의 변화 양상

해방 후 리옥의 시 창작에서는 일정한 기간, 해방 전에 쓰였던 표현방식들이 잔존하여 변화된 시대에 걸맞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적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시집 『청춘의 노래』(1959. 2, 연변인민출판사)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이 시집은 “대약진운동”이 시작되던 해에 기획되어 출판된 것으로 보이는데 1958년 5월 중국공산당 제8차 대회 2차 회의가 소집되어 모택동의 권의로 “열의를 북돋워 앞장서고 많이, 빨리, 좋게 사회주의를 건설하자”(“鼓足干劲，力爭上游，多快好省地建設社會主義”)라는 총노선을 결의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전국적인 범위에서 “대약진운동”이 진행된다. 따라서 이러한 “대약진

11) <오! 시월이여>, 시집 『봄바람』, 1981.2, 연변인민출판사, 85~88쪽.

운동”을 배경으로 출판된 시집 『청춘의 노래』에서 마침 다른 시집들과는 달리 특별히 “독자들에게”란 편집부의 권두언이 붙어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독자들에게

시집 《청춘의 노래》는 오늘 독자들과 대면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시집을 편집함에 있어 각지의 독자 투고자들로부터 열정적인 지지를 받았습다.

편집부는 국경 헌례 천만건 문예 위성 발사와 발을 맞추어 이제부터는 더 빨리, 더 많이, 더 좋은 시집을 륝속 출판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집들의 편집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더욱 큰 지지를 받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독자 여러분! 작품을 쓰시는 대로 인차 《연변 인민 출판사 제3편집실》로 투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작품과 함께 저희들의 편집에 대한 가지가지 의견들을 많이 제출하여 주십시오.

경례

편집부¹²⁾

저러한 “광고” 아닌 광고 속에 해당 시기의 사회문화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들끓어있었는지를 감안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표현에서는 아직 고전적인 어조가 여기저기에서 엿보인다.

촌과 거리 잇대여
만화방초 우거지고
간곳마다 풍류잡혀
칠선녀도 들떠났네

공장에서 기술 박사
학교에서 로동 영웅
비단 늘어 꽃밭이요

12) 시집 『청춘의 노래』, 1959.2, 연변인민출판사.

쇠물 흘러 금밭이라

아름다운 조국에서
만대 행복 길이 누려
금수강산 천만리에
새 소리와 꽃향기일세.¹³⁾

청산은 칙칙한데
수림은 우기저
머루 다래 주렁지고
노루 사슴 뛰논다.

송화강 상류
고동하 물에
물새가 날아예고
고기떼가 웅실댄다.

이 고장 목재로써
고대 광실 일어서고
이 고장 보물로써
만쌍 눈이 풀린다.¹⁴⁾

“풍류”, “칠선녀”, “고대광실” 등 고무하고 안일한 표현들이 “기술 박사” “로동 영웅”과 같은 현대적이고 혁명적인 표현과 혼재해 있어서 새로운 현실적 변화에 아직 익숙해 있지 못한 시인의 정신적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작품이 수록된 시집 『청춘의 노래』는 시집의 제목은 물론 그 속에 실린 시인들의 구체적인 작품의 제목에 이르기까지 “대약진운동” 시기의 혁명적인 낭만주의 격조가 바로 풍겨오는 듯하다. 앞에서 살펴 본

13) <조국>, 6~8연, 시집 『청춘의 노래』, 앞의 책 29쪽.

14) <오도양차에서>, “5. 목재와 보물”, 시집 『청춘의 노래』, 앞의 책 31쪽.

리욱의 작품외에 기타 시인들의 작품을 살펴보면, <남포 소리>(김명철), <무쇠 장수 총각>(김섭), <천길 지심에서>(김정호), <논뚝 길>(로병덕), <새시조>(류성근), <새 해의 현레>(리택수), <회춘가>(리향), <로동복>(림화), <앞당긴 가을>(방대홍), <앞으로만 간다>(운생), <인민 공사 좋네>(최집길) 등 해당 시기의 격양된 목소리들이 그대로 들려온다. 그 목소리들을 잘 담아내고 있는 작품 두 수만 예로 든다.

웃음은 방글방글
가지마다에 꽃이 피고
노력은 주렁주렁
나무마다에 열매 맺었으니
이런 나무 많이 키워
공산주의로 가리라.¹⁵⁾

- 류성근 <새시조>

천리벌 덮인 서리는
일조양에 다 스러져도
머리에 덮인 한줌 서리아
삼복 더위들 녹여내라
광풍인들 쓸어 가라,
만년 고목에 꽃이 피는
이 세상 살기가 좋을시구
공산주의 새 태양 솟자
눈부신 해살에 눈물이 글썽
호호백발은 제 빛을 잃고
검은 머리 머리를 덮어
백발 환흑(換黑)이로다 헤-
그렇지 그대 얼싸절싸 좋구 좋네
너울너울 백학의 춤에
북 장고 대 장단 뚱뚱 울려라

15) 시집 『청춘의 노래』, 앞의 책 25쪽.

회춘지희열에 일해나 보세¹⁶⁾

- 리향, <회춘가>(回春歌), 1연

그런데 그러한 고루하고 안일한 낡은 표현들은 공화국 내에서의 여러 차례의 혁명과 건설의 과정을 거쳐 앞에서 살펴본 조국이나 민족 관념처럼 수정이 되어간다.

아리랑

- 《아리랑》 창간을 맞이하여

아!
이쉬운 정 못이겨
새벽길 떠나 바래외다
랑군님 걸음 하두 재여
아리랑고개에 아침해 웃소이다
신비알(“탈”의 오타인 듯)이 아홉굽이요
물끓도 아홉굽이오나
가시는 길 자국자국 밟으며
아리송한 꿈길을 더듬나이다.

리!
리별은 몰래 서러워
눈가에는 이슬이 맺히나이다
그래도 이 길에서 웃음꽃 피워
반가운 상봉을 고대하노니
랑군님, 성좌로 나이를 세고
백운으로 머리를 올린들 어떠오리카
흐르는 세월 아깝다 마시고
가슴에 품은 큰뜻 이루소서.
랑!

16) 시집 『청춘의 노래』, 앞의 책 38쪽.

량군님 오실 고개마루에
들장미 떨기떨기 붉었고
나비는 쌍쌍이 나외다
산넘어 바다건너 오실 때에
기러기편에 소식 전하고
아리랑고개 무지개길로
청운기발 휘날리며
만드레꽃갓¹⁷⁾ 쓰고 오소서.¹⁸⁾

시어의 선택에서 아직 확연한 새로움은 보이지 않으나 보다 현실적인 감각에 출발하고 있고, 특히 첫 음을 시작으로 연 구성을 시도하고 있고 “아리랑”의 세 음절이 각각의 의미 있는 고개로 형상화되고 있어서 기본 음성에서 시적인 주제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해방 후 리옥의 시 창작에서 보다 다양하고 입체적인 표현이 비롯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싸움의 세월 흘러
그 몇해런가
아들은 훈장을 달고 돌아와
어머니곁에 앉았네

어머니는 뜨락 화단을 가리키며
-네가 가꾸던 장미 저렇게 컸단다.

빙그레 웃으며 내다보는 아들의 얼굴에
장미꽃이 환히 피었네.¹⁹⁾

무자비한 “문화대혁명”의 시기를 지나 경제 건설을 우선시 하던 “개혁개

17) 꽃가운데 가장 크고 붉으며 아름답다는 전설중의 꽃, 이 꽃으로 꾸민 잣인바 즉 성공과 승리를 의미함. —시인의 주해.

18) 시집 『봄바람』, 1981.2, 연변인민출판사, 88~89쪽.

19) <전사와 장미꽃> 전문, 1981년 7월에 지은 것으로 표기되었다. 중국작가협회 연변분회 편, 『연변조선족자치주성립 30돐 기념 서정시집』, 1982.8, 민족출판사, 162~163쪽.

방”의 시기에 새롭게 나타난 평화롭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작품이다. 1978년 12월 22일에 북경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제11차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당의 사업 중점을 정치혁명에서 사회주의현대화건설에 옮긴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실시되기 시작한 “개혁개방”의 물결은 보다 평화롭고 건설적인 사회문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갔고 그러한 분위기가 시인의 구체적인 창작의 과정에도 영향을 준 것이다. 작품에서 어머니와 이들의 무언, 그러나 지극히 자연스럽고 감동적인 교감은 시인의 시적인 소재가 격변하는 혁명의 시대를 지나 가정적이고 미세한 인간의 정 의 세계로 회귀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다만, 이러한 회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시인의 삶이 끝나면서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긴다.

IV. 결론

리옥의 해방 후 시창작의 변화상을 해방 전과의 비교에서 알아본 결과, 우선 해방 전의 작품에서 초기 창작에서 흔히 엿보이는 단순하고 직설적인 표현 속에서도 스케일이 큰 대륙적인 기질을 엿보이는 시적 상상력은 이후의 시인의 창작에서 보다 폭이 넓은 시적 공간과 주제의 깊이를 가능케 하였다고 보았으며 이는 보다시피 <躑躅花>와 같은 작품에 이르러 “생명”이나 “우주”와 같은 딱딱한 시어들이 “躑躅花”나 “나비”와 같은 구체적인 시어로 풍성해지면서 시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주제를 관습적이 아닌, 한결 형상적인 새로운 언어들로 전해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시적인 성취도는 그 후 발발한 태평양전쟁으로 일제의 파시즘의 통치가 가장 암흑기를 장식해나가던 시기에 이르면 많은 문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친일적인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百年夢>과 같은 작품을 들여다볼 때, 리옥의 경우도 피해갈 수 없는 운명으로 파악된다.

물론 “시국”에 대한 그러한 시적인 화답을 하면서 시인은 마냥 편한 마

음가짐일 수는 없었다. <帽兒山> 등 작품에서 흘러나오는 나뭇대로의 고민과 회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시인에게 새로운 출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탐색하도록 압박하였음이 분명하였다.

다음 해방 후의 창작을 살펴볼 때, 광복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는 시인에게 참다운 길, 보다 성숙된 길을 걸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주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격변의 시대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과 그에 따른 시 창작에서의 새로운 정서와 주제로 확고하게 자리잡아가는 과정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물론 시인의 그러한 확고한 현실인식은 그러나 구체적인 창작의 과정에서는 모든 내용들에서 일사분란하게 분명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우선 주제에서의 변화 양상으로 분석할 수 있었는데 광복을 전후한 시대에 살았던 대부분의 조선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리옥도 <民族이 가진 榮譽로운 이름>과 같은 작품들에서 민족이나 국가에 대한 관념에서 혼란된 인식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러한 관념들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대약진운동”과 “인민공사운동”, “반우파투쟁”과 “문화대혁명”이라는 일련의 정치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정돈되고 수정이 되는데 이는 <조국찬가> 등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제에서의 변화와 함께 시적인 표현 방식에서도 리옥의 시창작은 그 변화 양상을 보인다. 해방 후 리옥의 시 창작에서는 일정한 기간에는 해방 전에 쓰였던 표현방식들이 아직 남아있어서 변화된 시대에 걸맞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적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시집 『청춘의 노래』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 고루하고 안일한 표현과 현대적이고 혁명적인 표현과 혼재해 있어서 새로운 현실적 변화에 아직 익숙해 있지 못한 시인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하였다. 물론 그러한 고루하고 안일한 낡은 표현들은 공화국 내에서의 여러 차례의 혁명과 건설의 과정을 거쳐 앞에서 살펴본 조국이나 민족 관념처럼 수정이 되어간다. <아리랑>과 같은 시에서는 제목을 이루는 세 음절이 각각의 의미 있는 고개로 형상화되고 있고 기본 음성에서 시적인 주제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해방 후 리옥의 시

창작에서 보다 다양하고 입체적인 표현이 비롯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 <전사와 장미꽃>과 같은 작품에서는 어머니와 이들의 무언, 그러나 지극히 자연스럽고 감동적인 교감은 시인의 시적인 소재가 격변하는 혁명의 시대를 지나 가정적이고 미세한 인간의 정 의 세계로 회귀했음을 보여주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보다 인간적인 표현의 영역으로서의 문학에 대한 시인의 자세나 표현이 가장 원숙한 단계로 들어섰음을 방증하는 보기이기도 하다.

조선족의 대표시인 중 한 사람으로서의 리옥의 해방 전과 해방 후의 시 창작은 그대로 조선족 시문학의 역사적인 흐름과 점철되어 있다. 특히 해방 이후, 사회주의리얼리즘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주류(主流)문학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던 리옥시인의 창작은 이후의 조선족의 시문학에서 리얼리즘적인 창작을 이어갔던 김철, 임효원, 리상각 등 시인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인의 생애와 사회적인 배경은 물론, 작품에 내재하는 주제에서 형식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가지 양상들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도 체계적이며 깊이 있는 논의는 조선족 시문학의 역사적인 변모뿐만 아니라 이후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연구에서도 자못 의미 있는 작업임에 분명하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리옥, 『在滿朝鮮詩人集』, 1942.10, 藝文堂
_____, 『颶風』, 1947. 3.1, 延吉한글硏究會, 憫酒印刷廠
_____, 1947, 『北斗星』, 연길시직공인쇄공장
_____, 1949.1, 『북륙의 서정』, 민중문화사
_____, 1957.9, 『고향사람들』, 민족출판사
_____, 『청춘의 노래』, 1959.2, 연변인민출판사
_____, 『변강의 무지개』, 1979.3, 연변인민출판사
_____, 1980.4, 『리옥시선집』, 연변인민출판사
_____, 『봄바람』, 1981. 2, 연변인민출판사
_____, 1982.12, 『풍운기』, 료녕인민출판사
연변조선족문화발전추진회 편, 2004.10, 조중대역관 『중국조선족명시』, 민족출판사
연변대학 조선문학연구소 편, 2005.6, 『중국조선민족문학대계 6』, 김조규·윤동주·리
옥 시집,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중국작가협회 연변분회 편집, 1982.8, 연변조선족자치주성립 30돐 기념 서정시집, 민
족출판사

2. 단행본

- 김경훈, 2012.11, 『조선족시문학연구』, 연변인민출판사
김호웅 외, 2011.12, 『중국조선족문학통사』 상권, 연변인민출판사
_____, 2012.6, 『중국조선족문학통사』 하권, 연변인민출판사
조성일 외, 1990.7, 『중국조선족문학사』, 연변인민출판사

3. 논문

- 권철, 2005.6, 「건국전 리옥의 시세계(해제)」 『중국조선민족문학대계 6』, 김조규·윤
동주·리옥 시집, 연변대학 조선문학연구소 편,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전국권, 1989, 「리옥론」, 임범송·권철 주필, 『조선족문학연구』,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 Abstract ■

A Research about the Changes of LiXu's Poems

Jin, Jing-xun

Through the comparative study of Li Xu's poems before and after liberation, it is not hard to find that the works in the early stage before liberation uses more pure and direct expression. We can find that there are larger continental traits in it. From the aspect of imagination comparing with the later poets, his poems have a wider perspective and a deeper space and theme.

Compared with "Zhizhuhua" such works, have a wider field of vision. The themes that the poets want to emphasize can be expressed in new ways. Of course, after that the achievements of poetry change as the strengthening of Japanese fascists varies. Many writers drift, there have been some pro-Japanese works, and was partially damaged. Works before the liberation, under the changes of the era, first, the body consciousness like <national honor name> have a deep understanding on the concept of nation or country. After the establishment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during the "Great Leap Forward" and many other modifications has modified such understandings and also modified the manifestation of reminiscence. After that poems have gone through great changes of the times, creation returns to the family and people's subtle emotional world.

As one of the representatives of Chinese-Korean poet Li Xu, His works before and after the liberation is the development of history and embellishment of the Korean nationality of. Therefore, for the internal and deep forms of works, both the poet's life and social background can influence its objectivity and systematicness which can not only change the literary history of Korean poetry but also have considerable value on the later research development.